

사탄의 전략

[본문 : 행 6 : 1 ~ 7]
존 스토틀 목사 / 1999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방법과 무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 장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도행전 말씀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 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성령강림기간 동안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2 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들은 서로 교제했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습니다. 성령충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와 연합하는데 힘을 쏟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가하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렇게 ‘지체’라는 틀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됨이 있자마자 사탄의 전략적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 2 장에서 최고 지도자는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러나 3 ~ 6 장을 보면 마치 사탄이 최고의 지도자인 듯이 군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 장 3 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 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속에 감추인 것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악한 영이 성령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아나니아의 마음에 들어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했고, 아나니아는 사탄에 의해 움직였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와의 싸움에서 그가 사용하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사탄은 세 가지 무기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첫 번째로 사탄은 육체를 무너뜨리는 무기를 사용합니다. 무력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매우 교활한 무기가 있습니다. 외적으로 바로 ‘도덕적 합리화’입니다. 외적으로 무너뜨리고, 내적으로 부패하도록 사탄은 공격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중적인 모습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탄이 쓰는 교활한 방법은 ‘사회적 분리’입니다. 사도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그것을 무너뜨립니다.

사도들의 우선순위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들이 사회적인 봉사활동을 하게 만들면서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과부들을 돌보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에 성공했다면, 사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저보다 더 사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사탄에 대해 알고 있는 바로는 그는 뛰어난 전략가가 아닙니다. 상상력도 부족합니다. 수 세기가 흘렀음에도 그는 전략을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가하면 무기나 도구를 바꿔 사용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는 아직도 그토록 오래된 똑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전략 1 - 핍박

좀 더 자세히 사탄의 무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으로 우리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3 ~ 5장의 주요 내용들입니다. 사탄은 유대인의 지도자를 통해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성전 미문에서 앓은뱅이가 고침을 받았을 때 그들은 분해하면서 사도들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살펴보면 그들의 공격 내용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앓은뱅이가 나은 것에 대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3장 12절 이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 일을 보고 놀라느냐? 왜 우리를 기이하게 보느냐? 우리가 앓은뱅이를 낫게 하였는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하신 것이다. 너희들이 그를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죽임 가운데서 부활시키셨고 우리는 그 일을 본 증인들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서 있지 않느냐? 회개하라. 그리고 구약에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아 누리라.’

여러분, 사도 베드로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에 의해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

든 예언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하시면서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름다운 간증들이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이 분개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화로움을 받을 때 사탄은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그들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도들은 붙잡히고 심판대의 앞에 섰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일이 금지되었습니다.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그것을 방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핍박을 그들은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사도들의 굳건함과 담대함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던 일로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핍박은 성공한 것 같았지만 핍박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핍박을 통해 교회가 더욱 하나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교회는 핍박을 당하고 있고 순교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여러 곳에서 그렇습니다. 그런가하면 이슬람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핍박은 교회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수단’이라는 곳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교회는 놀랍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핍박은 교회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전략 2 - 도덕적 부패

그래서 사탄은 두 번째 무기를 사용합니다. 바로 ‘도덕적 부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좋은 예입니다.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간의 사건과 매우 흡사하다.’ 이 두가지의 사건을 보면 ‘속임’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광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속임이었습니다. 그들이 베푸는 것이 부족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도들에게 그들의 재산의 일부분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정직성이 결여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재산을 전부 가지고 온 것처럼 속였습니다. 그렇게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희생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과 격려를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희생과 봉사에서 나오는 칭찬과 격려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중인격자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것을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얼마나 싫어하셨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에 그들의 악한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한 자세로 나와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빛이신 것처럼 빛으로 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장애물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떠한 벽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아프리카의 부흥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1920년대부터 아프리카에 부흥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계속적으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매우 흥미롭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붕과 벽이 없는 집에서 살고 싶다.’

여러분, 지붕과 벽이 없는 집이 어떻게 ‘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것을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들을 막는 그 어떤 것도 없는 집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역자들과의 관계를 막는 어떠한 벽도 없는 집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힘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리고 내적인 부패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사탄은 오늘날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교회의 정직을 무너뜨리고 교만은 갖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상대방에게 솔직해야 할 것입니다.

전략 3 - 분리

사탄의 세 번째 전략을 보십시오. 바로 사회적인 분리와 붕괴입니다. 6장 1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지므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한대

여러분은 이 상황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과부들 사이에 질투심이 폭발했던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사이에서 원망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언어가 달랐고 문화적인 차이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의해서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은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들은 일 가운데 파묻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우선순위인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서 멀어졌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매우 지혜롭게 이 문제에 접근했습니다. 교회 모임을 갖고 이 문제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일곱집사를 선택하여 교회를 돌보게 하자는 제안을 내놓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선출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일곱집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와 집사와 봉사자 간에 나눔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잘 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역들을 서로에게 분담하여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른 일을 맡기십니다.

우리가 ‘사역’을 이야기 할 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사역에 있어서 여러분은 목양에 관한 것만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수 백가지의 여러 사역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는 사역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역입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목회, 목양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왜 목회나 목양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역이라고 말합니까?’라고 다시 묻습니다.

‘사역’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단어 앞에 어떤 말을 붙이기 전까지는 결코 구체적으로 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6장말씀을 보게 되면 일곱 사람이 봉사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게 도비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말씀을 전하는 상역’과 ‘구제하는 사역’에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두 가지 다 ‘사역’입니다.

이러한 사역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차이점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으로 봉사를 하는 사역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저는 사역에 대해 ‘피라미드’의 비유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까이 다가갈수록 다른 나라로 가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사람들, 피라미드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배웠습니다. 선교사가 되지 못한다면 그 다음 단계인 목회를 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치가나 언론인이 되나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셨다면 그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목사로 부르셨다면 그것도 놀라운 일

입니다. 여러분을 사건을 기록하는 언론인으로 부르신 것도 또한 놀라운 일입니다.

정치인, 경찰, 심판 등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수 백가지 이상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에 합당한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본문 말씀을 기쁨으로 선택했습니다. 하목사님의 평신도 목회철학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할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6장 7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르심에서 이탈하지 않을 때 교회는 성장하게 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계의 현상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며, 상당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적인 일에 많은 시간을 빼앗겨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주신 사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은 평신도에게 주신 사역입니다.

사탄을 대적하라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탄의 세 가지 전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천 번째는 핍박입니다. 두 번째는 부패입니다. 세 번째는 분리, 붕괴입니다. 사탄은 유대 지도자들의 권력을 사용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힘으로 무력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용하여 공격했습니다. 이중적인 모습으로 교회에 부패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과부들의 우너망을 통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도록 공격해 온 것입니다. 만약에 사탄이 이 세 가지 무기를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할 때 교회가 무너졌다면 교회는 초창기부터 없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사탄은 그의 전략을 결코 바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간교한 전략에 맞서기 위해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으로 더욱 담대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무찌를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사탄은 우리로부터 도망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굳게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전략이 오늘날까지 있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핍박이 올 때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타협하고 싶을 때

타협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협력하여

은사대로 섬기게 하셔서

이 세상 속으로 뛰어 들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가 교회의 승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출처 - 은누리신문